Weekly 2022년 제36호 | 2022.11.17.(목)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반도체, 미국·중국】 美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저사양 반도체 생산해 對中 수출통제 대응

【코로나, 중국】 中 최고지도부, 제로코로나 정책의 확고한 시행 지시

【배터리, 중국】 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블루오션으로 부상

【광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WTO 패소해도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 지속 시행 전망

【곡물, 러시아】 러시아·UN대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산 곡물·비료 수출 합의 연장 협상 재개

【반도체, 대만·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미국에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 준비

【ESG, EU】 EU,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속한 허가 발급을 위한 한시적 긴급조치 제안

【물류, 세계】 세계 해운업, 컨테이너 과잉으로 골치

【경상수지, 일본】 日, 경상수지 8년 만에 최저 기록

GVC 뉴스 더하기

① 새정부 첫 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② 美 중간선거 결과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

GVC 기초상식

미국 상·하원 제도 소개

GVC 돋보기

세계 주요국 원자력발전 산업동향 3편

GVC 전문가

"최근 반도체 장비 교역 동향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상지

더 찾아보기

네옴(NEOM)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소개

GVC 소식통

① 공급망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안내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신 GVC 해외 이슈

■ 【반도체, 미국·중국】 美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저사양 반도체 생산해 對中 수출통제 대응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美 반도체 대표 기업 엔비디아(Nvidia)는 저사양 반도체 생산을 통해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7일 중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자국산 첨단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수출 등을 제한하는 규제조치 발표
- 엔비디아는 기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인 A100을 저사양 신규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처리장치 A800로 대체하여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용 A800는 400GB/s로 기존 A100의 성능 600GB/s의 70% 수준 이하, 미국 제재에 따르면 對中 수출 프로세서의 기능은 600GB/s를 넘을 수 없음
- 최근 독일 정부 역시 중국 기업의 자회사 실렉스(Silex Microsystems)가 추진해 온 독일 기업 엘모스(Elmo's)의 반도체 공장 인수 계획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음

출처: WSJ('22.11.8), 파이낸셜타임즈('22.11.8)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코로나, 중국】 中 최고지도부, 제로코로나 정책의 확고한 시행 지시

- 11.10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하며 "제로코로나 정책을 확고히 시행할 것"을 지시
- 당 상무위는 "일률적·과잉 방역은 지양하고 과학적이고 정밀한 예방·통제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며 "전염병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및 "경제의 안정적 운용 보장" 등을 강조
-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10월 중하순부터 가파른 상승세. 11.10일부터 나흘 연속 1만명 이상을 기록하여 13일에는 1만 5,525명으로 1만 5천명대 돌파

출처: 中신화사('22.11.11), 연합뉴스('22.11.14)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배터리, 중국】 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블루오션으로 부상

- '25년까지 중국의 차량용 폐배터리 누적 규모는 137.4G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회수할 리튬·코발트·니켈·망간은 해당 시장수요의 27.7%, 55.5%, 28.7%, 47.9%에 달할 것으로 전망 (자료: GGII, 高工产业研究院)
- '22.9월 말 기준 중국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1,149만대이며, 이중 순수 전기차는 926만대로 전체 신에너지차의 80.6% 비중 차지
- '22.1~9월 중국 차량용 배터리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6.2% 증가한 372.1GWh, 탑재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0.5% 증가한 193.7GWh (이중삼원계 77.2GWh, 리튬인산철계 116.3GWh)
- 전기차 및 차량용 배터리 생산이 급증하면서 중국 각급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시장 구조조정·산업 규범화·지원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대표 기업 GEM(格林美) 등은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차량용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한 모습

출처: 차이나데일리('22.11.10)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광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WTO 패소해도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 지속 시행 전망**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단독 인터뷰에서 WTO의 무역분쟁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니켈 등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금지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1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는 몇 년 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국내 제련소에서 제련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중임

  • 이는 단순 원자재를 채굴·수출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화하는 2차 제조업을 키우기 위함

- '19년 EU는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21.4월 분쟁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

  • 하지만 WTO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상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특히 최종 판단이 나오더라도 니켈 수출 금지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강제성은 없음

-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과거 광석 수출로 연평균 11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를 벌었지만, 이제는 니켈 제품 수출로만 연 208억 달러(약 28조 4천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니켈 원광 수출 금지로 효과를 본 인도네시아는 내년 '23년부터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와 주석, 구리 등의 원광 수출 또한 금지할 계획

  * '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19억 8,900만톤으로 전 세계 6위 규모

출처: 연합뉴스('22.11.9)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곡물, 러시아】 러시아·UN대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산 곡물·비료 수출 합의 연장 협상 재개**

- 지난 10월 러시아의 참여 중단 통보로 중단되었던 러·우의 곡물·비료 수출 합의 연장 협상이 11.11일 재개

  •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봉쇄되어 발생한 글로벌 식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와 곡물 수출 재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유엔과 튀르키예 중재), 그 결과 우크라이나산 곡물은 흑해 3개 항구를 통해 수출이 재개되었고 러시아산 곡물·비료 수출 정상화도 합의

  • 수출 정상화 당시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의 복잡한 對러 제재로 자국 곡물·비료 수출이 여전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곡물 수출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음

  • 러시아 측 입장을 반영하여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러시아는 영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16대로 크림 반도의 흑해 함대와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며 10.29일 협상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음

-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외교부는 對러 제재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소유의 러시아 회사와 관련이 있어 자국 항구에 동결되어 있었던 2만톤 규모의 러시아산 비료에 대해 유엔 요청에 따라 對말라위 운송을 허용한다고 밝힘

  • 네덜란드 외교부는 "유엔이 계획된 장소인 말라위에 배송되도록 보장하고, 이 거래로 러시아 회사와 개인이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행한 결정"이라고 덧붙임. 하지만 곡물·비료 수출 연장 협상 재개에 맞추어 러시아가 불만을 토로한 수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출처: 연합뉴스('22.11.12)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반도체, 대만·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미국에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 준비**

-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가 첫 번째 공장(12월 완공 예정)에 이은 두 번째 美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며, 첫 번째 공장과 유사하게 최소 12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11.9일 월스트릿저널이 보도

- 로이터 통신이 TSMC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공장이 위치한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 두 번째 반도체 생산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빌딩을 건설할 계획으로, 애리조나 팹에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임

- 반도체 업계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현재 대비 약 2배 늘어난 연간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TSMC의 반도체 공장 신설이 향후 반도체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

- 美정부는 올해 390억 달러를 반도체 보조금으로 책정하고 내년부터 대상 기업에 지급할 예정

출처: WSJ('22.11.9), 동아일보('22.11.1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ESG, EU】 EU,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속한 허가 발급을 위한 한시적 긴급조치 제안

- 11.9일(수) EU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해당 지침개정이 완료·발효될 때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간소화하는 긴급 조치 제안

- 집행위는 지난 5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중단을 위해 REPowerEU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허가의 신속한 발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후 에너지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이번 조치를 추가로 제안함

- 50kW 이하 건축물 상부 태양광 설비 설치 프로젝트,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등에 대해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6개월 內 노후화된 풍력발전 설비교체에 대한 영향평가 완료 등 속도를 낼 방침

-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등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가 신재생E 프로젝트의 환경훼손 감시 및 민주적 통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

- 환경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환경과 민주적 통제가 훼손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법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의 허가 또는 기존 설치된 신재생E 발전 시설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 환경적 우려가 미미함을 밝힘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1.11)

■ 【물류, 세계】 세계 해운업, 컨테이너 과잉으로 골치

- 미국 CNBC는 세계 해운업계가 항구 터미널에 빈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컨테이너 보관 장소가 포화 상태가 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고 보도

- 컨테이너 과잉이 심화되며 컨테이너 운임도 '21.9월 고점 대비 73% 떨어지는 등 하락세 지속

- 소매업체의 재고 증가로 화물운송 성수기인 연말임에도 컨테이너 수요가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

출처: 한국무역협회 물류뉴스, 연합뉴스('22.11.11)

■ 【경상수지, 일본】 日, 경상수지 8년 만에 최저 기록

- 일본 상반기('22.4~9월) 경상수지가 2014년도 이후 최저 수준인 4.8조 엔을 기록함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일본 경상수지는 4조 8,458억 엔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58.6% 감소

- 4~9월 경상흑자 감소와 엔저 현상, 자원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급증이 흑자액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원유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반기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47.1% 증가

-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증가가 커서 흑자 감소액은 리먼 쇼크가 있었던 2008년도 하반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

출처: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22.11.14)

GVC 뉴스더하기 ① : 새정부 첫 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정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을 개최**하여('22.11.9)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청정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보도자료 및 정책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요

- **(개요)** 민·관 전문가(위원장 : 국무총리)로 구성된 우리나라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하여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방향 논의·발표**('22.11.9)

- **(논의 안건)** ①**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②**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③**수소기술 미래전략**

■ 수소경제 정책 방향

- 3대 성장전략 ❶**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❷**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❸**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 제시

❶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 및 **대형 모빌리티 보급 확산**

❷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 **수소 발전입찰시장** 개설,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❸ 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全주기 핵심기술** 확보 및 규제개혁, **해외시장 선점**

〈수소경제 성장을 위한 3UP 전략〉

■ 안건 주요 내용

1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목표)** '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보급, '36년 **청정수소 발전비중 7.1%** 달성

〈수소 상용차 보급〉

〈액화수소충전소 보급〉

〈청정수소 발전 비중〉

- **(추진 전략)**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수소 유통인프라** 구축,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 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수요 창출)** 수소버스·트럭 **구매보조금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수송부문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수소 혼소발전·연료전지** 보급 확산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석유화학 수소 연료전환** 등을 통해 발전·산업부문 수소 활용 촉진
  - **(유통 인프라)**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年 4만톤) 및 **액화수소 충전소**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암모니아 인수기지**(석탄·LNG발전 밀집지역),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 및 **수소항만 구축** 전략 수립·추진
  - **(청정 수소)** **해외 청정수소**(그린·블루) **생산 시범사업** 및 **암모니아·액화수소 운반선** 건조 등 추진
  - **(제도·기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23.上), **「수소사업법」 제정**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24) 등 추진

2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 **(비전)**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 산업화 등을 통해 **'30년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 **(정책 목표)** △**핵심기반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 7대 전략분야 기술수준(선진국대비) : (현재) 75% → ('30) 100%
  -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 품목 : (현재) 2개 → ('30) 10개
  - 수소 전문기업 개수 : (현재) 52개社 → ('30) 600개社

- **(추진 전략)**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 확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해외진출 유망분야 **수출 산업화**

- **주요 내용**

  - **(기술개발)** 미래 성장 잠재력과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7대 전략 분야**(❶수전해, ❷액화수소 운송선, ❸트레일러, ❹충전소, ❺/❻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❼수소터빈) **핵심 기술개발** 집중 지원
  - **(산업생태계)** **수소 전문기업 발굴·지원** 강화,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역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 등을 통해 수소 산업 저변 확장
  - **(규제개선)**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개선**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全주기 규제지도**(map)를 통한 **규제정보 사전 제공** 및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新기술 분야 안전기준 마련** 등 추진
  - **(수출산업화)** **5대 유망분야**(❶수소 모빌리티, ❷발전용 연료전지, ❸수전해 시스템, ❹액화수소 운송선, ❺수소충전소) 수출 상품화를 지원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수소 모빌리티**(버스·트럭 등) **확산** 및 **K-방산**(군용트럭·장갑차) **연계** 추진

3 수소기술 미래전략 (과기정통부)

- **(정책 목표)** **수소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수소 시장 선도**

- **(추진 전략)**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수소 공급을 위한 **저장·운송 기술 고도화**, △**수소 활용 기술 초격차** 확보

- **(주요 내용)** 핵심 **수전해 생산기술 국산화**, **차세대 수전해 생산기술** 확보, **해상 운송·저장 기술** 고도화 및 **수소전기차 기술 초격차** 확보 등 9개 과제 추진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작성 종합전략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2.11.9)

GVC 뉴스더하기 ② : 美 중간선거 결과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

◈ **11.8일 실시된 美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유지,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나 오차범위 내 접전 중으로, 향후 **공화당 영향력 확대시 향후 바이든 행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美 **공급망 재편, 재정·세제, 주요 산업 관련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 선거 결과

- '22.11.8일 실시된 美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유지,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나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접전 중** (11.16일 기준)
  - **(선거 체계)** 상원 35명(임기 6년, 2년마다 전체 1/3 선출), 하원 435명 전원(임기 2년) 선출
  - **(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49석, 하원은 민주당 209석, 공화당 21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과반수 218석)한 상황 (11.16일 기준)
  - **(주요 접전지역)** 조지아州의 경우 양측 모두 과반수 득표 실패로 12.6일 결선투표 진행 예정

- 現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주당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11.7일 기준 39%로 전주 대비 1%p 하락
  - 美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 : (6월) 9.1 → (7월) 8.5 → (8월) 8.3 → (9월) 8.2 → (10월) 7.7
  - CBS 10월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65%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48%는 민주당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미국 중간선거('22.11.8) 개표현황에 따른 양당 상·하원 의석 변화 〉

	117대 의회				118대 의회		
	민주	공화	무소속	공석	민주	공화	무소속
상 원	48	50	2		50	49	
하 원	220	212		3	209	217	

자료: NYT('22.11.16일 기준 개표 진행 중인 잠정치로 최종 결과는 아님)

- **공화당의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그간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해 온 미국의 국내외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전망**
  - 국내 정책 이슈에 영향력이 큰 양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美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 불가피. 중간선거는 향후 국정 정책 추진 동력과 차기 대선의 방향에 영향을 끼침

※ 공화당의 영향력 확대로 입법·행정 부처 간 교착 가능성 多 ※
- 공화당 의회는 높은 확률로 세금, 교육, 이민, 정부 지출에 관한 보수적인 법안 통과를 시도할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보호, 탄소 배출량 감소, 인플레이션 완화 등 주요 의제 우선순위를 행정명령에 의존해 처리할 전망

■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전망

〈 공화당 영향력 확대시 향후 미국 경제·산업 정책 방향 주요 영향 전망 〉

	주요 내용 및 전망
재정 지출 (인플레이션)	•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정부 지출안 견제 가능성↑**, 향후 **예산 감축** 전망
세제 정책	• 민주당 **증세 정책 제동 및 감세 정책 추진** 전망
친환경	• 기존 친환경에너지 뿐만 아니라 **미국내 석유·가스 증산 장려책** 추진 등 전통에너지와 수력 등 에너지 정책 강화 및 **규제 간소화**(LNG 수출 인허가 심사 간소화) 정책 추진 전망
인플레감축법 (IRA)	• 기본적인 법안 변화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시행령에서 일부 유연화 적용이 추진될 가능성**도 상존해 향후 추이 확인 必
공급망 재편	• **초당적 지지로 강화** 전망, **니어쇼어링 장려책** 추진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입법 가능성 감소**, 우려국에 한정하여 부과할 가능성 일부 존재
IPEF	• IPEF **구속력 강화** 요구 가능성

① **(재정 지출)**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現**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사회 인프라 정책과 대규모 정부 지출안 견제 전망**

- 공화당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바 있음.
- 정부 예산안(FY2023)에서 민주당이 확대한('22) **非국방예산**(사회·복지·기후 등) **규모 대폭↓, 국방예산 소폭 인상 가능성↑**

② **(세제 정책)** 민주당의 적극적인 **증세 정책에 제동 전망**

- 공화당은 '17년에 제정된 세금 감면책(향후 10년간 약 2.3조 달러 규모 감세 전망[NYT, Politico])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국적 기업 최저 법인세율(15%) 도입에 반대

③ **(친환경)** 공화당 견제로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투자 속도 완화 전망**

- 공화당 주도 하원 에너지·통상(E&C) 위원회는 ▲화석연료 및 수소·원전 에너지 정책 강화, ▲기존 규제 완화(LNG 수출 인허가 심사간소화 등) 등 추진 전망

  * Securing Cleaner American Energy Agenda를 통해 석유, 가스 생산 패스트트랙 제정과 국내 파이프라인(keystone)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 다만, 친환경 발전이 국제적 표준이 된 만큼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전통 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④ **(IRA) 시행령 일부 현실화·유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

-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IRA 관련 예산 폐기 의사 표명,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IRA 개정 의지를 밝히며,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시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⑤ **(전기차) 양당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어 **법안 전면 수정보다는 해외 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 자국내 생산 우대조항 유예기간 도입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최종조립 규정)** 공화당 의회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해 IRA **자국 생산 의무화 조항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일부 검토**할 것으로 예상
- **(핵심광물 규정)**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과도한 원산지 규정에 따른 기업부담을 주장**해 온 바 있음

⑥ **(에너지)** 공화당 하원은 에너지 부문 예산 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행을 재검토할 가능성**

- 다만, **공화당 우세지역의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 **산업 규모를 고려**시 IRA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책의 대표 수혜지역이므로 **정책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공화당 우세지역인 오클라호마州는 텍사스, 아이오와州에 이어 미국 3대 풍력발전 지역

⑦ **(공급망 재편)**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초당적인 지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화당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

-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분야 관련 고강도 수출통제**가 바이오, 양자컴퓨터, AI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 예상**
- '외국자본의 미국기업 투자 감시'에 이어, **주요 첨단기술 개발 역량이 있는 우려국 기업**에 **미국·동맹국의 투자 감시 심화 가능성**

⑧ **(IPEF)** 협정 체결 과정에서 **양당간 노력이 지속될 전망**

- 공화당 의회는 **대중 경쟁과 미국의 對아시아 영향력 확보**를 위해 **바이든 정부의 IPEF의 기조에는 찬성할 것으로 보임**
- 공화당은 IPEF의 구속력 강화를 요구하며 행정부의 기조에 제동을 걸 예정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대로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추진에 집중 전망

  * △인도의 무역 조항 불참에 따른 한계, △구속력 부재, △구체적 인센티브 발굴 난항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공화당 공세 강화 전망

- IPEF 내 시장 개방, 구속력 강화를 위해 USMCA 형식의 분쟁 조정 장치 도입 가능성 제기

⑨ **(탄소국경조정제도)** 공화당은 포괄적인 적용보다는 **철강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

출처 KOTRA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미국 중간선거(11.8) 결과와 시사점', NYT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기초상식 : 미국 상·하원 제도 소개

◈ 지난 11.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24년 미국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상·하원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美 **상·하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 양원제 개요

- **(개요)** 양원제란 국회의 구성을 2개의 원으로 하는 제도로 영국의 귀족원, 평민원에서 유래
- **(시행국가)**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92개국 중 81개국**이 양원제를 채택 (출처: 국제의회연맹 IPU)
  - 우리나라는 1차 개헌(1952)당시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변경했으나 제5차 개헌(1962,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美 상·하원 제도의 역사적 배경

- **(필요성)** 美 독립 후 최초로 발생한 Daniel Shays의 **반란(1787)을 진압하면서** 군대를 빠르게 파견시킬 수 있는 **연방 정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방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
  - 1787년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헌법제정의회에서 연방헌법 초안 작성, 이듬해 9개 주의 동의를 얻어 효력 발생
- **(양원제)** 인구가 적은 주들을 위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씩을 선출**하고, 인구가 많은 주들을 위해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도록 하여 **미국만의 양원제가 새 헌법에 쓰여짐**

■ 美 상원과 하원의 역할

- **(역할) 상원**(Senate)은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상원과 하원은 상호 견제의 역할을 함
  - 상원을 의미하는 'senate'의 'sen'은 old를 뜻하며 'senior'의 'sen'과 같은 어원으로 **상원의 임기가 6년**으로 긴 만큼 좀 더 **긴 호흡으로 국가의 장래를 논의**토록 함
  - **하원의 임기가 2년**인 만큼 국민들과 밀접한 **단기적인 현안(세금 등)을 주로 논의**
- **(권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대등**하며, **양원 의견 일치시 의결 효력 발생**
  - **상원의 주요권한** :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군대파병
  - **하원의 주요권한** :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 **(선출)** 상원과 하원은 임기, 출마자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하원의원은 전원 2년마다 선거**를 치루지만 상원의원은 **2년마다 33, 33, 34명이 선거를 치러 임기는 6년이나 선출주기는 2년**임
  - 각 주의 두 상원의원 중에서 먼저 당선된 쪽을 'Senior Senator', 나중에 당선된 쪽을 'Junior Senator'라고 함

	상원의원 (Senator)	**하원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출마자격	■ 30세 이상, 국적취득 9년 이상, 해당 주 거주	■ 25세 이상, 국적취득 7년 이상, 해당 주 거주
선출인원	■ 총 **100명** (상원의장이 미국부통령을 겸임함)	■ 총 **435명**
임기	■ **6년**	■ **2년**
선출주기	■ **매 2년마다 상원의원의 1/3**을 새로 뽑는 상원의원선거가 치러짐	■ **매 2년마다 하원의원 전체**를 새로 뽑는 하원의원선거가 치러짐

출처 김지윤의 지식Play, 미국의 헌법개정절차 등 작성 종합전략실

GVC 돋보기 : 세계 주요국 원자력발전 산업동향

◈ 최근 EU Taxonomy(녹색산업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되고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국 원자력 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주요국 원전 동향〉

32호: 미국·러시아·독일
33호: 중국·프랑스·영국
36호: 폴란드·체코·이집트

■ 폴란드

- **(현황)** 폴란드는 '**33년까지 최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 90% 이상인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에 대한 석유·가스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 2021년 폴란드의 총 발전량은 180.6TWh이며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70%, 가스 11%,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지열) 11%, 바이오매스 5%, 수력 2%, 석유 1%임
- **(주요 정책)** '21.2월 폴란드 정부는 **에너지 정책**(PEP2040)**을 채택**하여 탄소배출 저감과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43년까지 **총 6~9GW 규모의 원자로 6기 건설**('33년 1~1.5GW규모 원자로 1호기 최초 가동, '43년까지 2~3년마다 추가로 나머지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함
  - PEP2040은 '3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23%로 확대(연안 풍력에너지 설비용량 '30년 5.9GW, '40년 최대 11GW 도달 예정)하고, 석탄 의존도를 56%로 감축('20년 기준 72%)하는 등의 목표 설정
- **주요 이슈**

① '22.10.28일 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美 **웨스팅하우스를 자국 최초 원전 1단계 사업자로 선정**.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건설승인은 '25년, 착공은 '26년, 상업운전은 '33년으로 예상됨

② 폴란드의 국영 · 민간기업은 **해외 국가들과 SMR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협력을 활발히 추진**함

- (미국) '22년 6월 폴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Enea는 미국 SMR 스타트업 기업 Last Energy와 초소형 SMR(20MW, PWR, 설계수명 42년) 공동 개발 및 폴란드 내 보급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함
- (루마니아) '22년 9월 폴란드 광산·제련업체 KGHM Polska Miedz와 루마니아 원전 운영사 Nuclearelectrica는 NuScale SMR에 관한 프로젝트 개발(462MW, 총 6기 모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캐나다) '22년 10월 폴란드 화학기업 Synthos Green Energy는 캐나다 원전운영사 OPG의 자회사 Laurentis Energy Partners와 폴란드 내 SMR 개발·보급을 위한 포괄적 협력계약을 체결함

■ 체코

- **(현황)** '22.11월 기준 Dukovany 원전과 Temelín 원전에서 **총 6기**(3,934MW, PWR)**를 가동 중**이며 Dukovany 원전(1~4호기, 1,878MW, PWR)에 추가로 1,200MW급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22.3월 입찰 개시
  - '21년 체코의 총발전량은 84.9TWh으로 이 중 원자력은 36%, 석탄 39%, 수력 4%, 태양광 2% 차지
- **주요 정책**

① 체코는 '20.1월 EU에 제출한 **국가 에너지·기후계획**(NECP) **최종본**에서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총발전량에서 원자력 비중**을 '16년 29%에서 '**40년에는 46~5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② '21.9.28일에는 Milos Zeman 대통령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지원하는 신규 법안인 '저탄소에너지 이행법안'**에 최종 서명하여 해당 법이 발효됨. 이 법을 통해 체코는 저탄소 전력 확보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추진해 체코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할 방침임

③ '22.1.7일 체코 연립정부는 **원자력과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원으로 구성하고 '33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을 폐기하는 정부 프로그램 성명서**를 발표함

④ 체코 **중저준위방폐물은 3개 처분장**(Richard, Dukovany, Bratrstvi)**에서 처리 중**임. 고준위방폐물은 심지층 처분 방식을 검토 중이며, 관련 계획에 따르면 '25년 부지 결정 후 '50년 착공, '65년 완공 목표

- **주요 이슈**

① 체코 정부가 Dukovany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올해 3월 EC에 통보한 3가지 재정지원책이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EC)가 6.30일 조사에 착수함

② 올해 9.14일 독점규제청(UOHS)은 '90년 체코의 민주화 후 민영화된 Skoda 그룹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04년 러시아 엔지니어링 그룹 OMZ에 매각되었던 前 Skoda 그룹의 계열사 **Skoda JS를 체코전력공사 ČEZ가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③ ČEZ는 Temelín 원전에 SMR 건설을 목적으로 자회사 ÚJV Řež 및 남보헤미아 주정부(South Bohemian government)와 남보헤미아주 **원자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④ ČEZ는 5.27일 원자력안전청(SÚJB)으로부터 Temelín 2호기(1,029MW, PWR)의 **계속운전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함

■ 이집트

- **(현황)** 이집트는 정부간 협정을 바탕으로 '17.12월 러시아와 원전건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2.7월 **이집트 북부에 VVER-1200 4기로 구성된 El Dabba 원전**(총 4,800MW, PWR) **1호기를 착공**함
  - '20년 이집트의 총발전량은 201.7TWh로 가스 78%, 석유 11%, 수력 6.5%,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지열) 3.8% 비중 차지

- **주요 정책**

① 이집트에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활발한 산업 활동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정전 위험 방지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발전 설비 다양화를 포함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함

② '16.10월 이집트 에너지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Energy)는 ' **'35년 이집트 에너지 전략**(Egyptian Energy Strategy until 2035)'**을 채택**하여 **'35년 재생E 47%, 원자력 3% 발전량 비중 설정**

③ '21.7월 이집트 원자력발전청(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NPPA)은 **'30년까지 이집트 원전 비중을 8%로 확대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이슈)** '22.7.20일 Mohamed Shaker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 장관과 Alexei Likhachev 러시아 Rosatom CEO가 참석한 가운데 **El Dabba 1호기**(1,200MW, PWR) **콘크리트 타설과 착공식이 개최됨**
  - 한편, '22.8.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러시아 Rosatom의 자회사인 Atomstroyexport JSC(ASE JSC)와 El Dabba 원전 2차측 건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El Dabba 원전의 터빈 건물 등 80여 개의 구조물 건설과 관련 기자재 공급을 담당하게 됨

GVC 전문가 : 최근 반도체 장비 교역 동향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상지

◈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 對中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구조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교역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보자

■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 '21년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전년 대비 44.2% 급성장**하여 **1,025억 달러** 규모 기록
- 국제반도체장비협회(SEMI)에 따르면 '20~'23년간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연평균 19.3% 성장하여 **1,200억 달러 이상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 구조 및 특징

- **(공급)**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시장의 79.5%**를 점유하는 **전형적 독과점 구조**
  - 5대 장비업체는 '21년 기준 매출액 순으로 ① Applied Materials(미국), ② ASML(네덜란드), ③ LAM Research(미국), ④ Tokyo Electron(일본), ⑤ KLA(미국)
  - '21년 5개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동기간 세계 반도체장비 총 구매액의 79.5%에 육박
- **(수요)** 세계 반도체장비 **구매액의 77.5%가 중국·대만·한국**에서 발생 → 3개국 영향력이 상당
  - '21년 기준 5대 반도체 장비업체 매출의 평균 **31.3%는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ASML을 제외하면 4개 업체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국가 역시 중국**인 것으로 파악됨
- 반도체장비 수요는 **반도체 업계 사이클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장비 구매액과 수입액이 유사한 패턴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

■ 세계 반도체장비 교역 동향

- 최근 5년간('17~'21) 세계 반도체장비 **교역은 연평균 6% 성장**하여 '21년 1,012억 달러 기록
  - 종류별로는 전공정장비(48.1%)가 가장 많이 교역되었으며 이어서 부분품(29.3%), 후공정장비(20.1%), 웨이퍼(2.5%) 순으로 교역이 활발
- 반도체장비 교역에서 **수출은 일본·미국·네덜란드, 수입은 중국·대만·한국** 순으로 규모가 크며, 수출국과 수입국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21년 반도체장비 3대 수출국(억 달러) : (일본) 312 (미국) 284 (네덜란드) 201
  - '21년 반도체장비 3대 수입국(억 달러) : (중국) 386 (대만) 298 (한국) 250
- 특히, 중국의 반도체장비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9.6% 증가**하여 '21년에 역대 최대인 38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1.6% 하락
  - 미국은 '19.6월 네덜란드 정부와 협조하여 ASML사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이후 올해 10월 공식 발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반도체장비 수입이 하락 전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세계 반도체장비 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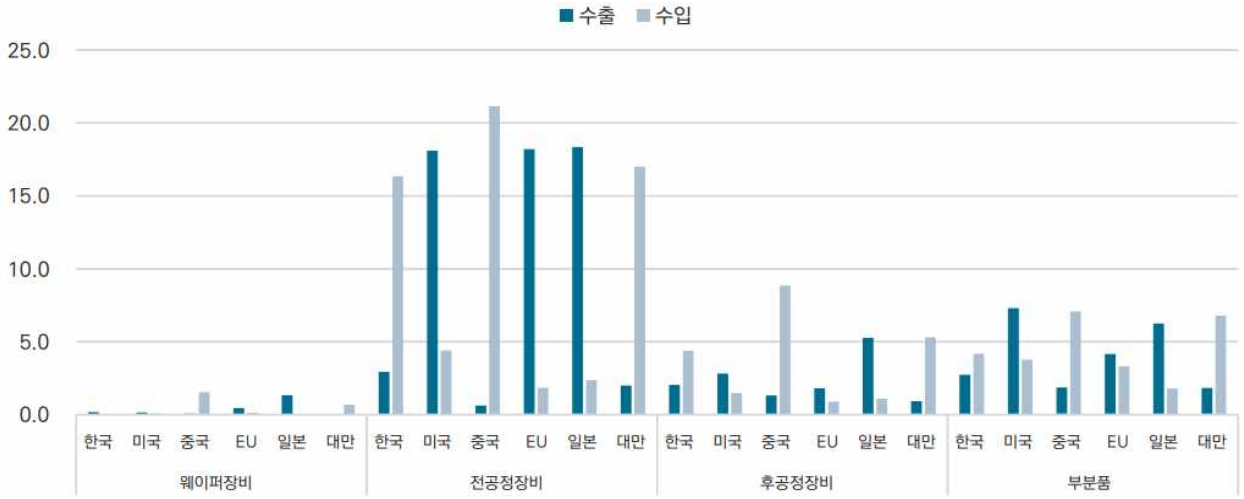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구분	국가	2021				2022*			
		수출	(증감)	수입	(증감)	수출	(증감)	수입	(증감)
흑자국	일본	312	(35.1)	53	(-1.5)	162	(11.1)	28	(28.1)
	미국	284	(33.5)	97	(11.3)	146	(5.6)	64	(40.4)
	EU	265	(31.8)	109	(34.4)	103	(4.2)	71	(75.4)
적자국	한국	79	(28.8)	250	(50.4)	44	(-5.0)	133	(-18.8)
	대만	48	(42.8)	298	(38.4)	17	(4.9)	110	(23.4)
	중국	39	(38.4)	386	(43.6)	21	(8.4)	186	(-1.6)

주) 2022년 : 한국은 1~7월, 중국·미국·일본은 1~6월, EU(역내외합산)는 1~5월, 대만은 1~4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EU, 일본은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변환)

〈 공정별 반도체장비 교역 현황('21) 〉

단위: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 한국 반도체장비 교역 동향

- 한국은 **반도체장비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상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설비투자 급증으로 장비 수입이 역대 최고였던 **'21년에는 171억 달러 적자 기록**
- 한국의 반도체장비 **수출은 중국·대만·싱가포르** 순으로 많으며, **수입은 미국·네덜란드·일본** 순
- 한국은 중국·대만에 비해 **미국·일본·네덜란드산 장비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미국·일본·네덜란드 3국 장비 '21년도 수입의존도(%) : (한국) 77.5 (대만) 70.6 (중국) 56.2

〈 한국 반도체장비 교역 현황 〉

단위 : 억 달러, 전년비%

구분	국가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	중국	25	(49.0)	32	(56.9)	34	(55.7)	43	(54.6)
	대만	6	(12.4)	6	(9.8)	7	(11.5)	9	(11.5)
	싱가포르	2	(4.6)	3	(5.3)	4	(6.6)	6	(7.9)
수입	미국	48	(26.0)	31	(30.7)	46	(27.4)	67	(26.9)
	일본	60	(32.8)	32	(31.2)	42	(25.2)	61	(24.3)
	네덜란드	43	(23.3)	17	(17.1)	42	(25.0)	66	(2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상지

더 찾아보기 : 네옴(NEOM)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소개

◈ 지난 10월4일(캄보디아 현지시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네옴(NEOM)시티를 지목함. 이로써 네옴시티는 서아시아 최초의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가 되었음. **네옴(NEOM)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자

▪ 네옴 프로젝트란?

- **(개요)** 사우디內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17.10월 최초 발표)로서 이집트·요르단 인접 **홍해** 해안* 약 26.5천㎢(서울의 44배) 부지에 **미래 산업, 주거, 관광특구**를 건설

  * 네옴시티는 **세계인구 40%**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이며 인근 수에즈운하에는 **세계무역량의 13%**가 통과함

- **(사업규모)** 총 사업 규모는 약 **5,000억불**(약 668조 원, '21.1월 추산)이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100% 지분을 소유한 NEOM Co.*는 주요 인프라 발주처임

  *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가 NEOM Co 이사회 의장이며 다국적 인프라 컨설팅 회사인 美 **AECOM社**가 네옴 관련 수송 및 인프라 관련 설계 수행자로 선정('20)

〈 네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위치 및 조감도〉

▪ 네옴 프로젝트 세부사업

1 The Line(더 라인) 프로젝트 ('21.1 계획 발표 / '22.7 구체 디자인 발표)

- 네옴 스마트시티의 핵심 권역(총 연장 170km)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높이 500m(롯데월드 타워 555m), 폭 200m, 길이 170km, 면적 34㎢에 이르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30년까지 900만명** 수용 목표
  - 도시기능(공원, 학교, 주거시설 등)을 수직으로 계층화하는 한편, 도보 5분 내 모든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2 Oxagon(옥사곤) 프로젝트 ('21.11 계획 발표)

- 세계 최초·최대의 팔각형 모양(총 면적 48㎢, 지름 7㎞) **해상 부유식 산업단지**로 AI기반 공장으로 구성
  - 7대 핵심산업으로 ❶자율주행, ❷수자원 혁신, ❸지속가능한 식량생산, ❹건강 · 웰빙, ❺현대적 건설 공법, ❻IT·첨단산업, ❼RE100 등 제시

3 Trojena(트로제나) 프로젝트 ('22.3 계획 발표)

- **산악관광 프로젝트**로서 네옴 지역 해발 1,600~2,600m의 산맥에 약 60㎢ 부지에 스키장, 리조트 등 건설 계획('26년 완공 목표, 2029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
  - ❶Gateway(더 볼트), ❷Valley(수상레저), ❸Fun(스키), ❹Discover(천체관측), ❺Relax(휴식), ❻Explore(트래킹) 등 6개 구역으로 구성하고, '30년까지 연 70만 관광객 유치 목표

작성 종합전략실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안내

[한국무역협회]

■ 1.「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포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주요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 반도체, 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 **일시/장소 : 11월 23일(수) 14:00~17:25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참가신청 : 11월 22일(화) 18:00까지** 신청 링크(클릭)에서 신청서 작성 or 무역협회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접수 마감으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포럼 전일 또는 당일 문자/이메일로 Youtube 시청 링크 송부 예정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GVC산업분석TF ☎ 02-6000-5177 / gvc_research@kita.or.kr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연사
14:00~14:05	• **개회사(5분)**	정만기 부회장(한국무역협회)
14:05~14:10	• **축사(5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산업부)
14:10~14:25	• **기조연설(15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조상현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
14:25~15:25 (1시간, 각 20분)	• **세션 I :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전략과 시사점**	
	- (미국)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	연원호 팀장(KIEP)
	- (중국) 글로벌 전략 구조와 한·중 정치경제 구조 변화 속의 대중국 공급망 전략	백우열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한국)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정책 대응	김진(산업부 소부장총괄과)
15:25~15:40	Coffee Break	
15:40~16:40 (1시간, 각 20분)	• **세션 II : 핵심 산업별 이슈와 전망**	
	- (반도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이승우 상무(유진투자증권)
	- (배터리)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합 속 K 배터리 산업 경쟁력 진단	최장욱 교수(서울대) (현대차그룹-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장)
	- (에너지) 러우 전쟁발 글로벌 에너지공급망의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이상열 팀장(에경원)
16:40~16:45	장내 정리	
16:45~17:25	• **세션 III : 패널 토론** - 사 회 : 조상현 센터장 - 토론자 : 산업부 이경호 국장, 중앙대 백훈 교수, 과기정책연 백서인 단장, 산업연 이준 본부장	
17:25	폐회	

■ 2.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산학협동재단)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 학술 세미나

- **일시/장소 : 11월 25일(금) 15:00~17:30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해외주요국의 글로벌 기술패권 관련 정책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기종점 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 :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 ESG 경영과 생태계 중심의 공급망 혁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항만물류 업계의 대응전략 연구 ▲글로벌 공급망 충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참가신청 :** 11월 24일(목)까지 신청 링크(클릭)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GVC산업분석TF ☎ 02-6000-5207

[KOTRA]

■ 202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서울)

- 2023년 세계시장을 조망하고 권역별 시장 이슈를 점검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로, KOTRA 지역 본부장과의 1:1 상담도 지원

• 일시/장소 : 12월 7일(수) 10:00~17:30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연사	비고
10:00~10:10	개회사 및 축사		
10:10~10:30	특강: 급변의 시대, 기업들의 생존전략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 (前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10:30~12:00 (각 30분)	세션1: 선진시장 (북미, 유럽, 일본)	각 지역 본부장	지역 본부장 1:1 상담
12:00~12:15	Q&A		
12:15~13:15	중식		
13:15~15:15 (각 30분)	세션2: 프로젝트시장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CIS)	각 지역 본부장	지역 본부장 1:1 상담
15:15~15:30	Q&A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15:45~17:15 (각 30분)	세션3: 주력시장 (중국, 서남아, 동남아대양주)	각 지역 본부장	지역 본부장 1:1 상담
17:15~17:30	Q&A		

• 참가신청 : 202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서울)(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온라인 결제하여 신청

❶ 일반 (11월 30일(수) 限 / 110,000원 [VAT 포함, 오찬 제공])

❷ 사회적 기업 (20% 할인) (11월 30일(수) 限 / 88,000원 [VAT 포함, 오찬 제공])

- 대상기업(증빙서류 첨부 필수) : 우수고용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우수방산, 소상공인

• 참여자 혜택 : 지역 본부장과 1:1 상담(사전매칭자 대상), '2023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도서, 설명회 자료집, 2023 권역별 진출전략 책자 및 중식 제공

• 문의처 : KOTRA 구미CIS팀 ☎ 02-3460-3233 / research1@kotra.or.kr

■ 202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서울 외 지역

지역	일시/장소	소개 권역	신청기한	신청링크
대전	12월 8일(목) 13:00~18:00 ICC호텔 그랜드볼룸(3F)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국	11월 24일(목) 18시 限	대전
대구· 경북	12월 8일(목) 13:00~18:00 인터불고엑스코 호텔 그랜드볼룸 B홀(B1층)	북미, 중동, CIS, 중국	11월 25일(금) 18시 限	대구·경북
부산	12월 8일(목) 13:00~18:00 BEXCO 제2전시장(3F) 321호	북미, 중남미, 일본, 중국	12월 2일(금) 18시 限	부산
광주· 전남	12월 8일(목) 13:00~18:00 김대중컨벤션센터(4F) 컨벤션 3홀	일본, 서남아, 동남아, 북미	12월 2일(금) 18시 限	광주·전남

* 참가비 없음, 11월 마지막 주(대전, 부산), 12월 첫째 주(대구·경북, 광주·전남)에 접수 결과 안내

• 문의처 :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최환석 사원 ☎ 042-862-8314 / cn_kotra@kotra.or.kr
KOTRA 대구경북지원단 송성규 사원 ☎ 053-659-2550 / shaunsong@kotra.or.kr
KOTRA 부산지원단 김은아 사원 ☎ 051-740-4025 / keuna@kotra.or.kr
KOTRA 광주전남지원단 송미주 사원 ☎ 062-513-9070 / thdalwn123@kotra.or.kr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KOTRA]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유망기업팀」☎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폭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셰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삼성 SDS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유망기업팀」☎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table>
<tr><th>기업명</th><th>지원 내용</th><th>신청 방법</th></tr>
<tr><td colspan="3">[해상운송]</td></tr>
<tr><td>POSCO
(포스코)</td><td>[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 지원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더
•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 출항지: 포항항/광양항 → 도착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내륙운임은 수출기업 부담)</td><td>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가입 후 합적 신청
사업안내 (클릭)</td></tr>
<tr><td>HYUNDAI GLOVIS
(현대글로비스)</td><td>[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 지원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
• 출항지: 광양항/마산항/평택항 → 도착지: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td><td>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클릭)</td></tr>
<tr><td>SM LINE
(SM상선)</td><td>[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
• 지원대상: 한국發 미주 수출 물량이 있는 중소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
• 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미국 롱비치항
※ 12월 항차 일정 업데이트 예정이며, 각 항차별로 신청서 작성 필요</td><td>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td></tr>
<tr><td>KMTC
(고려해운)</td><td>[인트라 아시아 중소화주 수출선복 제공 우대]
• 지원대상: 선적 희망일로부터 22일 이상 여유있는 수출 중소기업 (포워더 신청불가)
• 가능품목: 일반 FCL 컨테이너화물 (LCL 불가)
• 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인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td><td>사업안내에서 희망 국가 클릭 후 사업신청
사업안내 (클릭)</td></tr>
<tr><td colspan="3">[항공운송]</td></tr>
<tr><td>KOREAN AIR
(대한항공)</td><td>[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 지원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더 신청불가)
• 가능품목: 일반 항공화물 (특수화물 불가)
<table><tr><th>노선</th><th>출항일</th><th>예약 마감</th><th>서류/화물 (입고)마감</th></tr><tr><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td>수요일</td><td>월요일 12:00</td><td>화요일 12:00 이전</td></tr><tr><td>일요일</td><td>목요일 12:00</td><td>금요일 12:00 이전</td></tr></table></td><td>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클릭)</td></tr>
<tr><td colspan="3">[복합운송]</td></tr>
<tr><td>LX판토스
(LX판토스)</td><td>[유럽·러시아향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 10~12월 유럽·러시아향 추가 운임 할인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
• 가능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TCR은 40ft만 가능)
<table><tr><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th>내륙운송</th></tr><tr><th>노선</th><th>출발지</th><th>도착지</th><th>최종도착지</th></tr><tr><td>TCR</td><td>인천, 평택</td><td rowspan="2">폴란드 말라세비치</td><td rowspan="2">유럽 전역</td></tr><tr><td>TSR</td><td>부산</td></tr></table></td><td>(운임할인 및 지원사업)
사업안내 (클릭)
(10~12월 추가 지원사업)
사업안내 (클릭)</td></tr>
<tr><td colspan="3">[물류 보관]</td></tr>
<tr><td>CALT
(칼트로지스)</td><td>[부산신항 물류센터 컨테이너 화물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 서비스 내용: 물류센터 상하차 및 보관, 물류센터-CY터미널 셔틀 할인가 제공
• 가능품목: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수출업체→물류센터 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td>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td></tr>
</table>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화물예약데스크」☎ 02-6000-7617 / 5754 (월-금 09:00-18:00)
✉ logistics01@kita.or.kr / hjo117@kita.net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1. 16. 수)

[환율]

	'20.12.31	'21.12.31	'22.9.30	'22.11.11	'22.11.14	'22.11.15	전일比	21말比
₩/U$	1,186.30	1,188.80	1,255.90	1,318.40	1,325.90	1,317.60	-0.63%	+10.83%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56.20	1,318.80	1,326.00	1,317.40	-0.65%	+10.71%
₩/CNY	166.04	186.51	192.06	188.87	189.46	187.10	-1.25%	+0.32%
₩/Y100	1,051.19	1,032.48	964.30	931.60	951.35	938.93	-1.31%	-9.06%
Y/U$	103.34	115.14	130.24	141.52	139.37	140.33	+0.69%	+21.88%
U$/EUR	1.2279	1.1318	1.0544	1.0216	1.0309	1.0336	+0.26%	-8.68%
CNY/U$	6.5305	6.3681	6.5975	7.0969	7.0497	7.0486	-0.02%	+10.69%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1.14 (전일)	'22.11.15	전일(11.14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1.04	86.83	▼4.2 -4.6%	▲36.8 +73.5%	▲9.7 +12.6%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95.30	95.70	▲0.4 +0.4%	▲8.4 +9.7%	▼25.1 -20.7%
비철금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346.00	8,343.00	▼3.0 -0.0%	▲587.5 +7.6%	▼1,349.0 -13.9%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392.00	2,410.00	▲18.0 +0.8%	▲458.5 +23.5%	▼396.0 -14.1%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7,005.00	29,600.00	▲2,595.0 +9.6%	▲13,693.0 +86.1%	▲8,675.0 +41.5%

[반도체]

	'20	'21	'22.7	'22.8	'22.9	11.10	11.11	11.14	11월(~1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11	2.76	2.51	2.17	2.16	2.16	2.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1.6%	-34.0%	-32.7%	-32.3%	-32.2%	-32.1%	-32.3%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83	6.57	6.57	6.53	6.53	6.53	6.5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1.4%	-4.2%	-5.4%	-11.0%	-11.3%	-11.3%	-11.1%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0.21	'22.10.28	'22.11.7	'22.11.11	전주(11.7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1778.69	1697.65	1579.21	1443.29	-8.6%	-71.4%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8.31	'22.10.31	'22.11.11	'22.11.14	'22.11.15	전일(11.14)比	'21년말比
BDI	2217	965	1463	1355	1325	1300	-1.9%	-41.4%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 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K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KAR 한국로봇산업협회 |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 KSIA 한국반도체산업협회
KONMA 한국비철금속협회 | KPIA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 KOIMA 한국수입협회 | 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KEA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 KBIA 한국전지산업협회 | KSCI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철강협회
KAIA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kosti 전략물자관리원 |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KNOC 한국석유공사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T 산업연구원